

지역 총선 당선인 '1호법안=지역발전' 초점

제22대 국회 개원 한달 앞

첫 발의법안 점검 등 준비 분주
지방 투자촉진·기업 지원 강화
지역균형발전·수사시스템 개혁
전기차 보급 확대·제철 특별법도

제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5월30일이면 4·10 총선 당선인들이 국회에 입성해 민생·개혁 법안 논의의 시작한다.

22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분야가 두드러지는 '1호 법안'으로 지역의 목격한 현안 해결과 지역민의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다음달 29일 폐원하며 다음 날인 30일 22대

광주·전남 총선 당선인 '1호법안'

당선인	1호 법안
광주 동남갑 정진욱	지역 활력 제고·경쟁력 강화 투자촉진 특별법
광주 서구갑 조인철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
광주 서구를양부남	불공정한 수사시스템 개혁 법안
광주 북구갑 정준호	반값 전기차 보급체계 구축 법안
광주 북구를전진숙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광양산단 제철특별법
여수를조계원	여수형 기본사회 관련 법안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국가환경재난기금법

국회가 개원, 공식 출범한다. 국회 입성을 한 달 앞두고 있는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자신이 발의할 1호 법안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발의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남구 대촌의 도시첨단국가산단과 예나지밸리 일반산단은 2023년 말 모두 완공돼 부지 분양은 70%(지난 15일 기준, 현재 국가산단 74.2%, 일반산단 68.7%) 정도 이뤄졌지만, 기업 입주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 당선인은 이 두 곳의 산단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그 지정 방

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은 지방 산단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 있지만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 당선인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지방소멸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발전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 당선인은 "우리 광주의 AI 산업을 비롯한 특화산업을 키우고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를 양부남 당선인은 법조인 출신답게 현재 불합리한 수사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수사시스템 개혁' 법안을 첫 발의할 계획이다.

양 당선인은 해당 법안 발의를 통해 경찰 수사 규칙 제24조(수사 기간) '의무 규정화'를 개정해 수사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찰 수사 규칙 '의무화 규정'을 개정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공개기준을 엄격화하고, 무분별한 검·경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제동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적극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당선인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전기차' 보급체계 구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전기차 시대에 따른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포부다. **▶2면에 계속** **박지혜·김은지 기자**

윤석열-이재명, 오늘 첫 영수회담

대통령실서 1시간 차담 형식 '1+3명' 참석... 의제 제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동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만남이다. 두 사람은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민생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국정 기초와 정국 현안을 이야기하면 윤 대통령이 주로 듣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측은 "총선 민심 반영된 문제들 대해서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 "초대에 응해 주셨다. 잘 모시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영수회담은 약 1시간 동안 차담으로 진행된다. 다만 종료 시각을 정해놓지 않았

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가 길어진다면 1시간30분에서 2시간까지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배석 인원은 양측 각각 3명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대변인이 함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짧은 모두 발언 뒤에 비공개 회담이 이어진다. 당초 이 대표 측에서 윤 대통령의 독대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무회담에서 독대와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영수회담 의제는 제한이 없도록 했다. 의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던 양측 실무진은 일단 두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 회담을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신안 자은도 '피아노섬 축제' 낮 기온이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27일 신안 자은도 뮤지엄파크 일원에서 열린 '피아노섬 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양산 해변의 파도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피아노 버스킹을 즐기고 있다. **김양배 기자**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원전,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한국전력공사는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하루 1원 절약하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